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학과 | IT금융경영학과 | 이름 | 신XX |
| 파견국가 | 미국 | 파견도시 | Shippensburg |
| 파견대학 | Shippensburg University | 파견기간 | 2019-2학기~2020-1학기 |
| 귀국여부 | 예 | |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Shippensburg University는 펜실베니아 주의 시골 마을입니다. 학교의 위치는 동부여행을 하기에 아주 좋으며 필라델피아, 워싱턴, 뉴욕과 가까이에 있어 암트랙이나 버스를 타면 편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학교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강의실과 컴퓨터 및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 되어있습니다. 학교는 대체로 조용한 편이고 학생들도 대부분 착한 편이라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교수님들 또한 매우 친절하시고 오피스 아워에 찾아가면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학교의 위치가 시골인 만큼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학교 내부에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해본적은 없습니다.</p> |
| 2019-2학기 수업 | <p><u>1.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u> 수업 내용은 무난하고 교수님도 친절하고 유쾌하십니다. 시험도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이라 부담이 없고 평소 수업만 잘 나온다면 무리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가지 이유로 성적을 잘 받았음에도 수업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교수님의 말을 잘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가 리스닝을 원래 잘 못하긴 하지만 다른 교수님들의 말은 잘 들렸음에도 유독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은 한번에 알아듣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은 프랑스인 룸메이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수업의 경우에는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책이나 피피티를 참고해서 그 부분을 금방 캐치했는데 이 교수님은 책과 피피티 없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교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리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매 수업시간마다 질문을 던지시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수님이 질문하신 내용 자체가 들리지 않아서 여러 번 진땀을 뺐지만 지나면서 적응을 하게돼서 괜찮았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그룹활동입니다.</p> |

과목명처럼 이 수업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는 팀별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야합니다. 때마침 이 시기에 여러 학교에서 창업 프로그램을 2일동안 개최하는데 팀이 다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주신다고 하셨고 열정적인 팀원들이 다같이 나가자고 하여 관심은 없지만 얼떨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5분-10분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한 내용들을 발표를 해야하는데 2일동안 팀별로 피피티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만 6번은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조가 하필 미국의 웨딩에 대해 하게되어서 그것에 대해 알리 없는 저는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발표 또한 준비없이 즉석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2일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팀과제를 하면 대부분 제가 리드를 하다가 버스타는 사람처럼 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 Introduction to Academic Writing

저는 토플 공부를 할 때에도 라이팅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라이팅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수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신입생들이 필수로 들어야하는 수업이라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만큼 수업 방식이나 과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교수님을 잘 골라야 합니다. 첫 수업때는 '미국인들과 라이팅을 듣는다니 내가 여기서 제일 못하겠지' 싶었지만 막상 과제, 시험 점수표를 보면 제 점수가 늘 상위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라이팅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들었던 수업의 교수님 수업방식과 잘 맞아서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들은 수업의 교수님은 다른 학교로 가서서 추천을 해드려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이팅에 자신 있으신 분이라면 가볍게 듣기 좋습니다.

3. Leadership & Decision-Making

이 수업은 과목명 그대로 한학기동안 leadership&decision-making에 대해 배웁니다. 과제는 많지만 시험은 평이한 수업, 과제는 적지만 시험을 많이 보는 수업 중 전자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이 수업을 추천합니다. 매시간 한 챕터씩 예습을 해야하고 챕터마다 주어진 리더십 스타일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나의 사례(장점, 그에 대한 예시, 단점, 그에 대한 예시, 앞으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할 구체적 사항)를 써가야 합니다. 없어도 점수를 받으려면 뭐라도 적어서 가야하기 때문에 저는 라이팅 수업보다 이 수업에서 라이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습니다. 매 과제마다 없는 리더십능력 지어내느라 창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교수님이

| | |
|--------------------|---|
| | <p>문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저는 과제를 할 때 마다 라이팅 센터에 가서 첨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제 글은 미국인이 쓴 글 같지 않다며 늘 지적을 하셔서 라이팅 센터에 다시 방문을 해도 라이팅 센터 측에서는 괜찮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저는 결국 교수님을 100프로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과제 제출만 잘 한다면 성적을 잘 주십니다.</p> <p>4. Intermediate Accounting I</p> <p>한국에서 회계원리, 원가회계, 재무회계 수업을 A를 받았기 때문에 재미있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수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이수업은 출석도 과제도 점수에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시험 3번? 4번으로 성적이 결정됩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회계를 나쁘지 않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미지급금, 감가상각비 등의 용어가 영어로 무엇인지도 모른 채 첫 수업을 듣게되었고 멘붕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업의 과제들을 하느라 문제풀이 과제를 해가지 않아서 거의 1-2일 벼락치기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겨우 F를 면했습니다.</p> |
| <p>2020-1학기 수업</p> | <p><u>1. Academic Writing</u></p> <p>2019-2학기에 들은 라이팅과 같은 교수님 수업이라 믿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19-2학기 수업보다는 써야할 글자 수도 많이 늘었고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써야해서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야했습니다. 라이팅을 두 학기 중 한 번만 듣고 싶다면 Introduction to Writing을 더 추천합니다.</p> <p><u>2. Risk Management & Insurance</u></p> <p>이 수업의 교수님은 중국인이신데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제가 보험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이 수업이 가장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퀴즈를 5번정도 볼시에 보는데 평소 수업만 잘 들었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과제는 없고 시험도 오픈북이라 부담이 없었습니다.</p> <p><u>3. Introduction to human communication</u></p> <p>미국에 와서 스피킹 수업은 한 번 들어보고 싶었어서 들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3번의 스피킹 시험과 3번의 객관식 시험이 있었고 두 개 모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들었습니다. 이 수업 또한 라이팅 수업처럼 '내가 여기서 제일 못하겠지?' 라는 심정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준비해가시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이 수업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p> |

| | |
|---------|---|
| | <p><u>4. Applied calculus</u> 이 수업에서 배우는 수학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성실히 하셨다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학점 따기 편하게 들으려고 신청한 수업이었고 물론 이 수업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들도 많았지만 미국 친구들은 모든 내용을 처음 배우는지 잘 못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들으면서 옆 친구들에게 설명도 해주면 친구도 사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p> <p><u>5. General Psychology</u>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심리에 대해 배우는 줄 알았지만 뇌 구조별 명칭, 기능 등 생각과는 다른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일본인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 교수님은 수업시간에 사용하신 피피티를 절대 어디에도 올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면 그날 배운 내용을 습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석만 잘 하시면 엑스트라 크레딧 받을 기회도 많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습니다.</p> |
| 프로그램 운영 | <p>Mary라는 담당자분이 외국인 학생과 관련된 일들을 도와주십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공항으로 픽업을 와주셔서 편하게 학교에 갈 수 있었고 마트에도 데려다주셔서 필요한 물건들을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과 유학생, 미국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최하시기 때문에 초반에 가시면 친구도 사귄 수 있고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등 개방적이어서 좋습니다.</p>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한국이랑 비슷한데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원래 해마다 눈이 많이와서 무릎까지 쌓인다고 들었는데 제가 간 해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왔습니다.</p> |

| | |
|----|--|
| 안전 | <p>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이미지로 학교의 상상한다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적한 시골마을 같은 느낌이라 매우 평화롭고 매우 안전합니다.</p> |
| 숙소 |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0) 기타()</p> <p>Stone ridge commons라는 사설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교환학생 수기를 살펴보니 다들 이 곳을 이용하시길래 다른 곳은 알아보지 않고 저도 바로 이곳에 살았는데 매우 만족했습니다. 우선 학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경영대 쪽 수업은 5분전에 뛰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룸메이트1명과 2명에서 방을 썼는데 부엌 거실 화장실만 공유를 하고 각자의 방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다가 기숙사와는 달리 음식을 해먹을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p> |
| 식사 |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0)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0) 기타 ()</p> <p>학교 밀플랜은 비싼데 저는 그만큼 먹지도 못하고 대부분 같은 메뉴가 많이 나와서 저는 밀플랜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리하기 싫은날에는 학교 피자헛에 가서 피자도 사먹고 샌드위치, 스시 등을 사먹어서 밀플랜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p> |
| 교통 | <p>위에서 말했듯 학교가 매우 시골이라 지하철은 물론 우버도 없습니다. 마트에 가려면 무조건 학교 버스를 타거나 친구에게 부탁을 해야하는데 학교 버스는 돌아서 가기 때문에 멀미가 나서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갈 때에도 공항이나 기차역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리는데 갈 방법이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매번 같은 친구에게만 부탁할 수 는 없으니 차 있는 친구 여러명과 친하게 지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 대략 240만원 | 편도로 각 120만원정도 |

| | | |
|-----------|-----------|--------------------------------------|
| Fees | 약 \$4,000 | 학기별 \$2000 정도 |
| 보험료 | 약 50만원 | 현대해상 유학생보험 |
| 숙소 | \$5760 | 3번에 걸쳐 각 \$1920씩 납부 보증금 \$500 |
| 식비 | 약 400만원 | 매달 50만원정도 8개월 |
| 교통비 | X | 걸어서 학교 감 |
| 책값 | \$326 | 19-2학기 약 \$126 20-1학기 약 \$200 |
| 여행(+쇼핑) | 약 1300만원 | 시카고,보스턴,뉴욕,워싱턴,필라델피아,마이애미,올랜도(디즈니월드) |
| 생필품(학기 초) | 30만원 이상 | |
| 합계 | 약 3320만원 | |

5. 출국 전 준비사항

신한은행이나 씨티은행 등등 잘 찾아봐서 한국돈을 달러로 바로 환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돈이 언제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있으면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부모님 신용카드 하나 가져가세요! 여행을 다니면서 호텔에서 묵게될 경우 보증금을 지불해야하는데 대부분 현금은 안되고 카드만 됩니다. 체크카드는 보증금을 일단 빼간 후 1달후쯤 들어오기 때문에 보증금 만큼을 여행경비에 우선 포함을 시켜서 여행을 해야해서 힘들어요. 신용카드는 택배로 보낼 수도 없어서 갑자기 필요해질 경우에 매우 답답하기 때문에 미리 꼭 챙겨가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미국에 1년 다녀온다고 해서 영어를 갑자기 엄청나게 잘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하게 말 할 수 있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붙게 됩니다. 저는 사실 교환학생 생활에 동기부여 할 만한 것도 없던 상태로 무턱대고 가게 된 케이스라서 특히 미국에 간 첫 학기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한국에 조기귀국을 할지에 대해 11월까지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외롭고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 같은 학교로 교환학생 간 사람들과 친해지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학기중에 과제와 시험으로 지쳐있다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환학생 가서 제일 좋았던 것은 미국 국내 여행을 많이 한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들 돈 많이 모아서 가세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



숙소 외부



숙소 방



숙소 거실



숙소 부엌



교내 행사